

LOCAL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목포 정체성·감성...‘2025 뮤직플레이’ 팡파르

맛플무안물, 고품질 양파 기획전
30% 할인 판매...가격 하락 대응

무안군은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물’에서 양파 30% 할인 기획전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1매씩 제공되는 양파 30% 할인 쿠폰을 통해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햅양파 기획전에서 전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으로 이를 만에 13t이 판매되며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 행사도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연초 양파 수입산 물량 급증하고 6월 초 수확을 앞둔 중만생종의 높은 단수가 예상돼 농가의 걱정이 클 것이다”며 “지역 농가들을 위해 고품질 무안 양파 소비 촉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5 신안 삼막 예술축제’ 개최

내일 비금도...17개국 문화 교류

신안군은 오는 24일 비금도에서 ‘2025 신안 삼막 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제는 1851년 비금도 인근 해역에서 난파된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가 신안 주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환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축제는 프랑스에서 유럽으로 범위를 확장해 17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다.

축제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호적 만남을 삼페인과 막걸리의 상징적 만남으로 재해석해 문화예술교류와 국제적 연대를 주제로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1851년 나르발호가 난파된 해역과 선원들이 머물렀던 공간 등 역사적 현장을 탐방한다. 몽티니 영화와 비금도 주민들이 문화예술교류의 자리를 가졌던 것에 착안해 한국의 전통예술, 비금도의 민속예술, 삼페인과 막걸리 시음, 양국의 식문화와 문화체험 등도 진행된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오늘부터 3일간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서

공연·전시·체험·경연대회 등 행사 풍성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목포, 음악이 되다’란 주제로 목포의 정체성과 감성을 음악으로 풀어낸 공연, 전시, 체험, 경연대회,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음악

도시 목포’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방침이다.

축제 첫날인 23일에는 ‘목포노래큰잔치’ 출연진 무대를 시작으로, 이난영·김시스터즈를 테마로 한 개막 공연과 LED 퍼포먼스, 그리고 남진, 김필, 소향, 두 번 째날, 윤수현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CROSS OVER 공연’이 펼

쳐진다. 24일에는 창작곡 경연대회 본선과 축하공연을 비롯해 비투비, 아이칠린, 원아스 등 인기 K-POP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토요일 밤을 수놓는다.

25일에는 전국 댄스매들 경연과 함께 힙합 뮤지션 자이언티, 기리보이, 단단, 잭팟 등이 출연하는 ‘Hip-Pop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메인무대의 공연 외에도 길거리 노래방 ‘더스트리트 싱잉마블’, 뮤직플레이 리스트 신정국 공연, 시민참여형 지역예술인 무대가 마련된다.

‘목포기억저장소’, ‘음악다방 스테이

션’ 등 시대별 음악 전시·체험 공간과 푸드트럭존, 폴리마켓, 힐링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2025 목포 뮤직플레이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며, 관람객 안전을 위해 주무대 공연은 좌석제로 진행된다.

사전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는 별도의 현장예매 전용 좌석에 대해 선착순 현장 예매가 이뤄진다.

프린지무대와 전시존, 체험존, 푸드트럭존 등은 뮤직플레이 기간 동안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상시운영되며 별도의 예

매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주차 편의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20분 간격으로 종합경기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3개 노선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동편의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전 예매를 통해 좌석을 미리 확보하면 더욱 편안하게 뮤직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산 고품질 바나나 인기 ‘고공행진’

2020년부터 시험재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유동
가족 단위 체험농장 인기

맛과 향이 뛰어난 해남산 고품질 바나나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내륙에서도 바나나 재배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시험 재배를 거쳐 해남에서도 바나나가 출하되고 있다.

바나나는 정식 후 1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하다. 생육이 좋을 경우 보통 2년에 3회 정도 수확하며, 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나 백화점 등으로 유통된다.

국내산 바나나는 나무에서 충분히 숙성한 뒤 수확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살균 처리하는 검역과정을 거치는 수입품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바나나는 수용성 팩틴과 칼륨, 무기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 나트륨, 독소 및 중금속 배출을 도와 섭취시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소화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 간식은 물론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 간식으로도 적합하다.

특히 바나나 농장은 볼거리 많고, 줄길거리 많은 체험농장으로도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바나나 농장



맛과 향이 뛰어난 해남산 고품질 바나나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해남에서 바나나를 재배 중인 한 농가의 모습.

에서는 아열대 작물 농장을 돌아보면서 농사체험은 물론 자연스럽게 기후환경 교육까지 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단체 교육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육성을 적극 추진, 농업기술센터 내 ICT 첨단하우스에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실증재배를 실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아열대 과수를 농가에 보급, 신규 소득원으로 정착해 나가

고 있다.

바나나 재배 2년차인 오영상씨는 “해남의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고 친환경 체험시설로 바나나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다”며 “바나나를 비롯한 아열대 과수 체험농장을 조성해 많은 분들이 해남 농업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장성 방문의 해’ 무장에 관광시대 연다

군, 장애인 휠체어 지원 이동 편의성 제공

장성군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관광지원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무장애관광지원사업은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족이 관광명소를 여행하려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지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크게 정보 제공과 체험 콘텐츠로 나뉜다.

백양사, 장성호 수변길, 죽령산 편백숲,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 평림댐 장미공원, 금곡영화마을 등 10개 관광코스의 화

장실,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표기된 무장애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또 무장애 지점 정보를 공유하는 ‘월체어 앱’에 장성지역 점포의 경사로, 문턱,

테이블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무장애 관광코스를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10~11일 열린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에 휠체어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는 6곳을 지정하고 스탬프함을 설치했다. 스탬프를 다 모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돼 호응을 얻었다.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은 축제 이후에도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김한중 군수는 “무장애관광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여행복지 증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도 무장애 지점 확대 조성 등 세심한 배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

영광 백수·염산 급수구역 현장점검

영광군은 저수율(대신제 34%, 복룡제 35%)이 낮은 백수와 염산 급수구역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말부터 저수율 유지를 위해 확보한 연계수원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4월까지 영광의 강우량은 164mm로 전년 대비 124mm나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를 늦추고자 하천수·지하수·상수원 등 연계가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가뭄지역인 백수읍과 염산면 급수구역 주민들의 ‘수돗물 아껴 쓰기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30th 광남일보 창간사를 축하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